

조선시대 풍속화 들여다보기

전인지 | 202호 회화실 | 19:00~19:30

옛 그림 ‘풍속화’란 흔히 조선시대 풍속화를 가리키며 당시 사람들의 신분에 따른 생활모습을 다양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풍속화는 조선후기 화단에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와 더불어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몇몇 선비화가들의 선구적 풍속화 제작에 힘입고 17세기 이래 시정의 생활상을 그리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추어 18세기 후반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정조正祖기에는 화원들에 의한 풍속화 제작이 활발했고 지방에서도 사랑방을 장식할 정도로 저변화 되었다. 이러한 조선후기 풍속화 번성에는 여러 화가들의 공헌이 있었다. 풍속화의 씨를 뿌린 화가로 조선 향촌의 모습을 처음 그려 소개한 선비화가 윤두서尹斗緒(1668~1715)를 들 수 있다. 또한 김홍도, 신윤복과 같은 화원(도화서圖畵署 소속)화가에 의하여 조선후기 풍속화는 비로소 난만하게 꽃을 피웠다. 18세기 중후반기의 풍속화는 정조의 각별한 사랑과 문서관료 및 여향부호들의 후원을 받으며 활약한 화원화사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는 이미 20대에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손꼽혔다. 당시 유명한 감평가였던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김홍도를 “조선조 4백 년 만의 놀랄만한 솜씨로 풍속에 더욱 뛰어나 그릴 때마다 구경꾼들이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라고 평했다. 실로 서민들의 생업과 휴식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화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준 화가는 바로 혜원慧園 신윤복申潤福(1758?~1813 이후)이다. 그러나 명성에 비하면 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약하다. 빈약한 정보와 흥미로운 그림 때문에 많은 속전이 따르지만, 믿을 만한 것은 거의 드물다. 화원화가라고 하는 하지만 도화서 화원화가로서 활동했던 공식적인 기록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화가로서의 존재감으로서만 평가한다면 단원 김홍도의 위치에 비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풍속화의 부문에 있어서는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다. 그밖에 단원·혜원과 같은 주류 화가들의 풍속화와는 다르지만 주목을 요하는 19세기말의 풍속화로 개항장에서 활발하게 매매되었던 ‘기산 풍속화’가 있다. 기산 풍속화의 의의는 김홍도를 위시한 18~19세기 전반 풍속화가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개항이라는 조선말기의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조선의 전반적인 풍속을 그렸다는 데 있다.

사경의 보존

박미선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사경寫經은 불경을 필사하는 것이다. 사경 자체로 공덕을 쌓는 행위였으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양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으로 알려진 신라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은 발문에 닥나무 뿌리에 향수를 주어 기르고 관여자는 모두 보살계를 수지하였다는 등 사경의 제작 과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경소 및 사경에 참여한 인력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원 황제가 사경에 필요하다고 하자 글씨 잘 쓰는 승려를 보냈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어 당시 사경의 제작이 분업화된 인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경 제작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으며, 주로 왕실의 후원을 통해 사경이 조성되었다.

현전하는 사경은 제작 재료와 제작에 동원된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경의 명칭을 종이의 색 또는 원료를 기준으로 백지, 감지, 상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푸른색으로 염색한 종이인 감지는 사경의 제작에 널리 사용된 재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종이의 명칭은 문헌기록과 차이가 있다. 청색 종이를 예로 들면 고려시대 사경에 사용된 종이는 청자지, 취지 등이 있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종이를 아청지라고 지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속의 아청지는 조선 후기에도 수십 냥에 이르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 원하는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공 기술과 이를 위한 노동력, 자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림 1. 묘법연화경 권제5 법화경 그림

우키요에浮世絵로 보는 일본 근대 - 요코하마에横浜絵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9:00~19:30

요코하마에横浜絵는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8)부터 메이지 시대明治時代(1868~1912)에 걸친 시기에 그려진 우키요에浮世絵의 한 종류이다. 요코하마에는 요코하마라는 도시의 풍경과 삶의 모습을 화제로 그렸으며, 니시키에錦絵라는 판화에 속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대량 생산된 것이 특징인데, 주로 요코하마항横浜港, 상관商館, 외국인의 풍속 등을 그렸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일명 ‘검은 배(쿠로후네黑船)’가 출현하여 에도막부를 압박한 결과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859년(安政6年) 7월 1일에 요코하마가 무역항으로서 개항開港했다. 모래가 많은 작은 어촌으로 인구가 300~4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요코하마는 개항으로 한순간에 이국적인 신식 도시로 변모했다. 이후 1860~61년의 2년간은 요코하마에가 가장 유행한 시기였다. 개항장 요코하마는 서양의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당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요코하마와 엮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위치한 에도(현재의 도쿄)의 판화상들은 요코하마의 거주지나 외국인 풍속에 흥미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 우키요에 화사들에게 그 풍경과 삶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이는 당시 선물(お土産)로서도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현세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려낸 요코하마에는 외국 문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던 중국 판화와 매우 대조적이다. 요코하마에는 에도시대 말기 활력을 잃어가던 우키요에라는 장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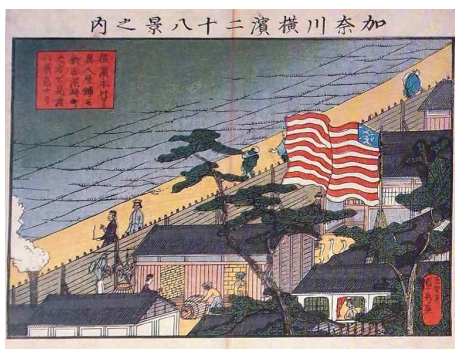


그림 1. 가나가와 요코하마 이십팔경中



그림 2. 요코하마 미야자키 일대의 모습

테마전시<벼락도끼와 돌도끼>(5)

오세연 | 테마전시실 | 19:00~19:30

『조선왕조실록』의 벼락도끼[雷斧] 관련 기록

- 세종 23년(1441) 5월 18일: 벼락침은 독이 없다. 대경실심하고 황홀하여 사람을 알지 못하는 증세와 아울러 하림을 주효로 하는데, 갈아서 복용하거나 또는 달여서 복용한다. 이것은 벼락이 쳤던 곳을 물어 땅 3척을 파게 되면 얻을 수 있다.
- 세종 23년(1441) 6월 8일: 평안도 의주에서 바윗돌이 벼락을 맞았는데 뇌부를 얻은바 이를 바쳤다.
- 세종 26년(1444) 3월 26일: 임천사람 성필이 뇌검을 둘을 얻고, 직산사람 토을마, 허승룡 등이 각각 뇌전을 하나씩 얻어 바친바, 성필에게는 면포 여섯필을 토을마와 허승룡에게는 각각 두 필을 내렸다.
- 세종 26년(1444) 5월 28일: 충청도 서천사람이 뇌전을, 홍주사람이 뇌검을 얻어 바치니 각각 면포를 내리되 차등을 두었다.
- 성종 23년(1492) 5월 16일: 경상도 관찰사 이극돈이 치계하기를, “지난 4월 초하루에 벼락이 치고 큰비가 내릴 적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 한 척이나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병 강계손이 땅을 파고 찾아내니 빛깔은 뇌설과 같고 모양은 복령과 같았는데, 손톱으로 긁으니 손톱에 따라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하니, 하서하기를 “뇌부에 비할 것이 아니니 올려 보내지 말라” 하였다.
- 연산군 11년(1505): 뇌부와 뇌창을 40개씩 경외에서 널리 찾아 바치라.
- 중종 8년(1513): 전라도에서 뇌부와 뇌창을 찾아 바쳤다.
- 광해군 14년(1622) 7월 9일: 왕이 ‘옛 방술에 이르기를, 벼락 맞은 곳엔 반드시 뇌부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 사기를 피할 수 있다 하였다’ 고 하고는 내관에게 명령하여 파 보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